



## 도시지역작전의 현실화와 발전방안

합동군사대학교 전술2학처장 성 형 권 대령





# 도시지역작전의 현실화 발전방안

성 형 권 (합동군사대학교 전술2학처장)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산업혁명 이후 공업발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도시화 추세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도시의 광역화와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도시의 가속화 추세를 보이면서 주택, 교통, 공공서비스,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의 이라크전, 걸프전, 아프간전, 코소보전, 체첸전 등에서 발생한 도시지역작전을 연구하여 2006년도에 「도시지역작전」 교리를 정립하였고, 교리연구기관·학교기관·야전부대 별로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하지만 교리와 전투수행방법은 한번 정립된 것으로는 계속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전장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에 부응하여 도시지역작전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도시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작전수행방법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도시지역이 발달된 남한지역으로 한정하였고, 내용적으로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도시지역 방어작전으로 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도시의 광역화에 따라 도시지역이 주 전장화되었고, 도시지역에 대

한 북한군의 위협증대와 도시지역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도시지역 방어작전이 더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양상을 추정해 보았다.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작전에 대해서는 식별된 교리가 매우 제한되어 북한군이 도시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적 교리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격양상을 제시하였다.

셋째,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양상에 기초해서 우리의 방어작전 수행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지역작전 교리와 부대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투수행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 교리는 야전부대에서 도시지역작전을 계획, 준비, 실시하는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을 계획 보완, 교육훈련, 무기·장비 및 물자, 민군협조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II. 도시지역 방어작전의 발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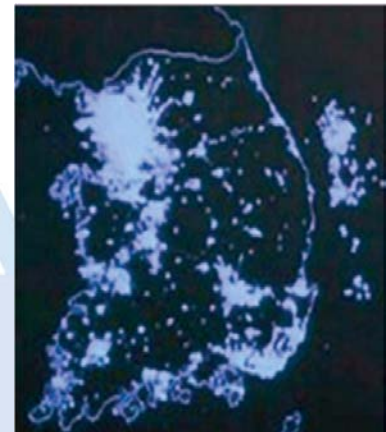
‘전투’라는 군사활동은 전투력·시간·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를 군사이론에서는 전투의 3요소라 한다. 즉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용한 전투력을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과 상이한 경우에 실시하는 작전을 특수조건하 작전이라 한다. 예를 들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산악·하천선·도시·요새지역작전 등이 있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야간작전, 동계작전 등이 있다. 이 중 도시지역작전은 ‘도시’라는 특수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무기나 장비·물자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전술교리가 다소 변경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산악과 도시는 병력을 삼킨다.”는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공격작전 시에는 도시지역을 가급적 우회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도시지역이 보편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도시지역을 우회하기 불가능한 경우

가 많고, 도시의 상징성이나 주요 기능으로 인해 전략적·작전적·전술적인 가치가 과거보다 훨씬 증대되었다. 따라서 도시지역 방어작전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투수행방법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1. 남한지역에서 도시지역의 主 전장화

최근에 발생했던 다른 국가들의 전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작전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시의 비중과 가치가 날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과 같이 우리의 남한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남한의 도시지역이 主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남북한 도시지역 비교

첫째,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2012년 현재 약 91%를 차지하고, 국가 전체 GDP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서 양산되고 있을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sup>71)</sup>, 도시 내부에는 국가기반시설은 물론 군사중요시설 및 병참시설 등이 대부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목표로서 많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둘째, 주요 도시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적의 주요도시를 점령하였을 경우 국민의 전쟁수행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도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2차대전시 독일이 프랑스 파리와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를, 베트남전쟁 시 베트콩이 사이공을 목표로 공격했던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셋째, 도시지역은 모든 교통이 집중되어 주요 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군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도시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공격부대의 기동을 촉진시키거나 전쟁지속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전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71)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2012년)

## 2. 도시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위협 중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도시지역이 주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북한군 역시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군의 적서에는 도시 및 인구밀집 지역과 관련하여 ‘부대지휘 및 협동동작이 복잡하고 전투행동에서 긴장성 및 돌연성을 발생할 수 있지만 건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적의 포병 및 공중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하고 주민으로 위장시 적으로 하여금 색출 및 소탕이 곤란하며, 공황 유발시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북한군은 도시지역을 장애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격시 이용가능한 작전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북한군은 시가지 모형훈련장을 설치하여 전차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기계화부대를 활용한 도시지역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물지역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열압력탄발사기<sup>72)</sup>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도 식별되었다.



<그림 2>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준비

이처럼 도시지역 공격작전을 준비 중인 북한군은 남한지역의 중심에 따라 도시지역을 공격하는 양상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장에서 기술되겠지만 간략히 언급한다면, 경기 및 강원북부의 전방지역에서는 고속으로 중심기동을 하는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전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을 직접 공격하여 확보할 것이며, 한강 이남의 후방지역에서는 조기에 한반도를 석권하기 위하여 대도시들은 가급적 우회해서 공격하고 적중에 남아 있는 도시지역을 포위하여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72) 열압력탄을 발사하여 벙커 또는 건물 내부에 있는 인원을 살상하거나 장비를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무기로서, 열과 압력의 복합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폭탄 대비 파편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벙커나 건물 내부와 같이 닫힌 공간에서는 고폭탄보다 12~16배의 살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3. 도시지역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은 건물, 도로, 공원, 운동장 등으로 형성된 지상지역과 지표면 아래에 형성된 지하철, 터널, 배수시설, 공동구, 지하상가 등의 지하공간, 그리고 지상과 건물옥상 위의 도시공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인공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도시지역 작전환경

그리고 건물 자체도 내부와 외부, 상층과 하층, 격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차원적이면서 복잡한 환경을 작전 부대에 제공한다. <그림 3>은 이러한 환경을 제시한 것이며, 이와 같이 복잡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은 공격작전 또는 방어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을 얼마나 잘 극복 또는 활용하는가에 따라 작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도시 환경이 작전에 미치는 주요 영향들을 전투수행기능별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구 분     | 작전에 미치는 영향                                                                          |
|---------|-------------------------------------------------------------------------------------|
| 지휘통제    | 집권화된 통제 및 적시적 결심 제한, 통신 효율성 감소                                                      |
| 정보      | 관측 제한, 첩보수집 및 전장 가시화 제한, 표적획득 제한                                                    |
| 기동      | 대규모 기동 및 장애물 운용 제한, 전투력 분산 운용 강요, 다양한 침투공간 제공, 저격수 활용성 증대, 매복·기습효과 증대               |
| 화력      | 간접사격의 효과 감소, 민간 및 기반시설 등의 부수적 피해 동반, 사계 차장, 포병진지 구축 제한, 항공지원 능력 감소, 화력수단의 집권화 운용 제한 |
| 방호      | 은폐 및 엄폐효과 제공, 간접피해(피탄, 화재 등) 발생 증대, 비전투원 분리 및 통제 소요, 단시간 내 요새화된 진지 구축 가능            |
| 작전지속 지원 | 근접전투 피해 및 비전투원에 대한 지원 소요 증대, 분권화 작전으로 인한 적시적인 지원 제한, 파괴된 민간 및 기반시설 복구 소요            |

<표 1> 도시지역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은 공자와 방자 모두에게 제한사항과 이점을 제공하지만 공자에 비해 방자에게 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도시지역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건물이 제공하는 은폐와 엄폐 효과는 물론 방호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인공구조물을 이용한 장애물 및 저격수 운용, 매복 및 기습 등을 통해 공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공자에게 도시지역은 공격기세를 감소시키는 마찰요소로 작용하여 일반적인 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도시’ 보다는 ‘고지’를 선호하는 사고를 벗어나서 도시지역이 제공하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어작전 수행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III.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양상(추정)

현재까지 확인된 적의 도시지역 공격교리는 소부대 및 우회대에 의한 도시지역 고립 - 특수전부대에 의한 도시 내부 혼란 조성 - 공격준비타격과 선견대에 의한 공격발판 확보 - 보전협동공격으로 도심지 내부 진입 및 아군 소멸 - 잔적 소탕 및 정치사업 과정으로 공격작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sup>73)</sup> 그러나 이는 도시지역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전투수행방법만 제시된 것으로서 남한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화된 공격양상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양상을 두 가지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는 경기 및 강원북부의 전방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최초부터 대부분의 도시지역을 직접 공격하여 돌파하고자 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둘째는 한강 이남의 후방지역에서는 도시를 일단 우회한 후에 포위하여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74)</sup>

#### 1. 최초부터 도시지역을 직접 공격하여 돌파

이러한 공격양상은 <그림 4>와 같이 경기 및 강원 북부의 전방 사단과 군

73) 정보사령부. “북한군교리 22-9-2. 야전군(군단)·사(여)단.” pp.271~272. 200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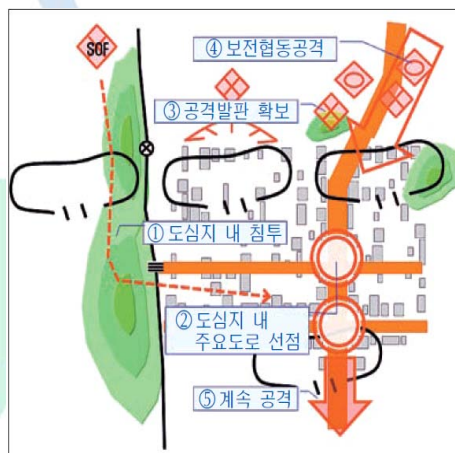
74) 분석근거는 한국군의 도시지역 공격작전, 미군의 바그다드 공격작전 사례, 러시아의 그로즈니 공격 등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이는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한 도시지역 방어작전 발전방안”. 군사평론 제 395호를 참조

단들이 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중·소도시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방의 주요 축선은 우회로가 제한<sup>75)</sup>되고 발달한 중·소도시들은 초전 상황에 있어서 보급로의 확보,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의 후속, 그리고 중심으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투입되는 부대들의 전투진입 여건을 보장하는데 긴요하기 때문에 적은 도시지역을 직접 공격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림 4> 경기 및 강원북부 도시지역

아군은 도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연대급 이하 부대가 도시지역에서 인접부대와 협조된 방어를 실시할 것이며, 적은 도시지역을 직접 공격하되 신속한 도시지역 확보를 위해 도시 내에서 포위소멸전투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도시지역 직접 공격

이러한 공격양상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그림 5>와 같이 먼저 특수전부대가 주변 산악지역이나 공중침투를 통해 도심지로 침투 후 도심지 내의 주요도로를 선점하고 정면에서 공격하는 부대와 전술적 배합전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주력부대가 공격하기 이전에 공격준비타격과 더불어 보병, 기갑 및 기계화부대, 공병 등으로 편성된 선견대가 도시 전방에 위치한 공격발판이 되는 중요지형을 확보하고 도시로 진입하는 통로 개방을 시도할 것이다. 이어서 주력부대가 보전협동공격으로 종적도로를 따라 중심으로 기동하여 도시지역을 돌파하고 후속하는 부대가 잔적을 소탕할 것이다. 주력부대는 도시지역을 돌파한 후 전술적 2제대인 기갑 및 기계화부대가 전투진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계속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75) 이는 도시지역의 발달형태를 크게 대별한 것으로 단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즉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문산, 파주, 금촌, 일산, 고양 등과 같이 통일로나 자유로를 따라 발달된 도시들과 같이 우회가 가능한 지역도 물론 존재한다.

## 2. 도시지역을 우회하여 포위한 후 공격

이와 같은 공격양상은 <그림 6>과 같이 한강 이남의 후방지역에 발달된 대도시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 이남지역은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어느 지역이든 도시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기동로가 충분하다. 따라서 속전속결로 한반도를 석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많은 출혈이 예상되는 도시지역을 직접 공격하기 보다는 일단 우회하여 기동속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방자가 스스로 도시지역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위공격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



<그림 6> 한강 이남 도시지역

한강 이남의 도시지역을 우회하여 포위한 상태에서 공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그림 7>과 같이 우선 소부대 및 우회대에 의해 도시 주변의 감제고지, 도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도시지역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다. 그리고 특수작전부대를 도심지 내부로 침투시켜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아군 지휘소나 포병진지를 습격하여



<그림 7> 도시지역 포위 공격

혼란을 조성하는 동시에 첩보 수집임무를 병행할 것이다. 여건이 조성되면 강력한 포병 및 비행대의 타격지원 하에 선전대가 도시지역 외부의 공격발판을 확보하고 주력부대의 도시투입을 지원한다. 주력부대는 보전협동부대로 편성하여 도시 외부로부터 수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방법, 또는 우선적으로 하나의 축선으로 집중하여 공격하고 다른 방향에서는 견제하다가 뒤늦은 공격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도시지역을 확보할 것이다. 도시지역을 확보한 이후에는 경무근무<sup>76)</sup>을 조직하고 정치사업<sup>77)</sup>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76) 경무근무란 부대 밖에서 성원(부대, 부대원)의 규율을 단속하는 근무방법으로써 헌병근무와 유사함

77) 공산주의 사상 주입에 대한 교육으로서 대중에게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를 높여 주기 위한 사업

이상에서 북괴군 교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공격양상이 아닌 두 가지 형태의 공격양상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우리 군의 교리 역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작전수행방안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IV. 도시지역 방어작전 수행방안

앞장에서는 경기 및 강원 북부의 전방지역과 한강 이남의 후방지역에서의 북한군 공격양상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적의 공격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아군의 도시지역 방어작전 수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리에서는 <그림 8>과 같이 한 부대가 도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이 정면공격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기술되어 있다.



<그림 8> 현 교리의 도시지역 지면편성(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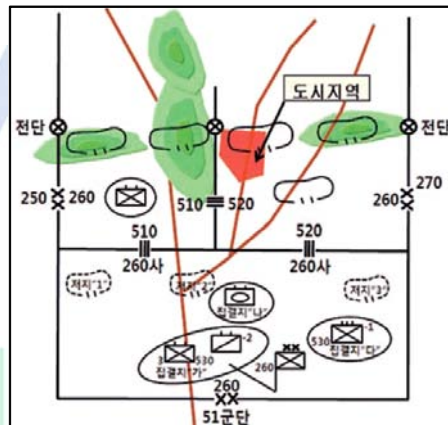
따라서 본 장에서 제시하는 도시지역 방어작전 수행방안을 기존교리에 추가한다면 야전부대에서 적용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교리가 부대의 작전계획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리를 적용할 때에는 부대별로 직면하고 있는 METT+TC<sup>78)</sup> 요소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78) 전술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가 작전을 계획, 준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임무(M), 적(E), 지형 및 기상(T), 가용부대(T), 가용시간(T), 민간요소(C)를 말한다.

## 1. 적이 최초부터 돌파하려는 경우의 도시지역 방어작전

이 방안은 경기 및 강원 북부 지역의 중·소도시들에 대해 북한군이 최초부터 돌파하고자 하는 공격양상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북한군은 도시지역을 돌파하기 위해 주타격 또는 보조타격방향 부대를 도시지역으로 지향할 것이며, 아군은 연대급 이하의 부대가 사단의 일부분으로 인접부대와 협조된 방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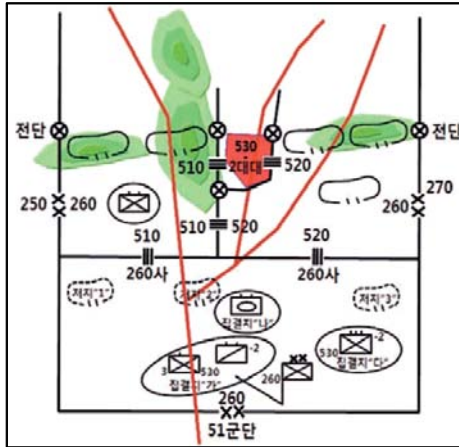
예를 들어 <그림 9>와 같이 사단의 책임지역 내에서 중·소도시가 전단에 위치한 경우에는 통상 도시지역과 도시 이외의 일반적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면편성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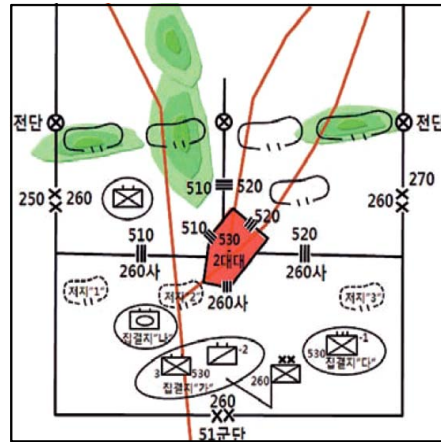
<그림 9> 도시지역이 포함된 일반적인 지면편성

그러나 도시지역을 방어하는 부대와 주변 고지군에서 방어하는 부대는 전투력 운용 방법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적도 도시지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역 보다 많은 전투력을 집중할 것이다. 즉 단일부대가 조건이 상이한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는 <그림 9>와 같은 지면편성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대한 책임을 단일부대에게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그림 10>과 같이 도시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1개 보병대대에 게 명확하게 책임지역으로 할당해 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대대를 연대에 배속시키기보다 사단장이 직접 통제하되, 적의 보전협동공격에 대비하여 대전차무기 또는 전차를 할당하고 필요시 전담포병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도시지역이 중심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이 이 도시지역을 반드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림 11>처럼 최초부터 단일 부대에게 책임지역으로 할당함으로써 방어중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10> 전단상 도시지역 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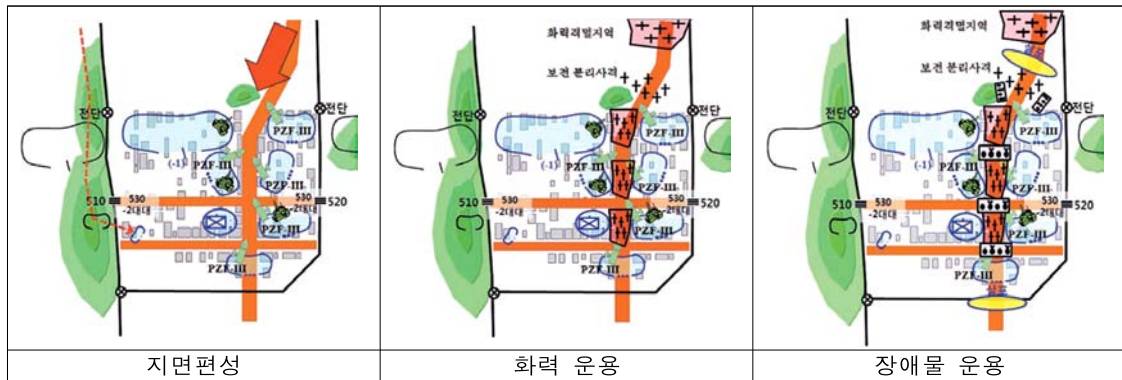


<그림 11> 중심상 도시지역 부어

다음은 사단으로부터 도시지역을 할당받은 대대의 입장에서의 작전수행방안을 기술하겠다. <그림 12>처럼 대대는 도시를 관통하는 종적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을 이용하여 중심 깊게 진지를 구축하고 대전차화기 역시 중심을 연해 운용한다. 그러나 전단지역은 전 정면에서 적의 돌파를 저지할 수 있도록 진지를 편성한다("T"자형). 그리고 예비대는 돌파된 건물구획단위로 공세행동이 가능토록 종적도로에 근접하여 집결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 외곽으로는 적 경보병부대의 사전 침투와 우회대의 퇴로 차단을 거부하기 위해 관측소나 선점부대를 운용해야 하고, 선전대의 공격발판 확보를 거부하기 위한 선점부대 운용과 공세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화력은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접근이 예상되는 지역에 화력격멸지역을 운용하고, 도시지역 전방의 공격발판이 되는 고지나 접근로에는 보전분리사격을 계획하며, 종적도로를 연해 지속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표적군을 계획한다.

장애물 운용 측면에서는 전단 전방에 유인장애물과 기동장애물(FASCAM)을, 도시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연하는 지역에 차단장애물을 설치한다. 특히 종적도로 좌우측으로 다른 기동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물은 지뢰 이외에도 도로대화구, 폐차량, 건물 잔해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전협동공격을 방해해야 한다.



<그림 12> 돌파에 대비한 방어작전

## 2. 적으로부터 포위된 경우의 도시지역 방어작전

한강 이남의 후방지역에서는 전방지역에 비해 병력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대부분 대도시가 발달해 있다. 따라서 전방지역을 극복한 적은 공격의 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견제부대<sup>79)</sup>로서 대도시를 견제하고, 주력 부대는 이를 우회하여 계속 공격함으로써 도시지역을 고립시키고, 견제부대와 후속역량들로서 대도시에 대한 포위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도시에서는 통상 사단급 또는 그 이상의 부대가 고립된 상태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방어부대는 아군부대로부터 증원이거나 보급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어느 한 방향이라도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방어작전을 기준으로 기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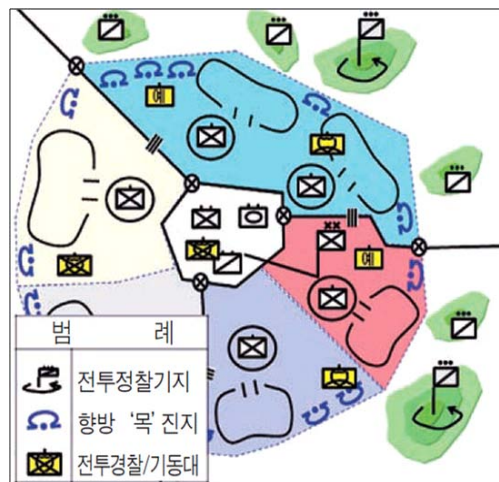
포위된 상태에서 도시지역을 방어하게 될 경우에는 전방으로부터 철수한 상비사단에 의해 작전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방지역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향방작전요소<sup>80)</sup>와 통합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포위된 상태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적이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비하여 전면방어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대규모이고 구획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분권화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권화 작전

79) 소수의 병력과 화력으로 다수의 적을 고착시킴으로써 주타격부대의 공격여건을 조성하고 차후 포위 소멸 전투에 참가하는 부대로서 통상 연대급 이상 제대에서 조직한다.

80) 향토사단과, 향토사단에서 운용하는 예비군·경찰 등을 포함한다.

을 위해서는 예하부대가 융통성 있는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전투력을 할당해 주고, 상급부대는 적정 규모의 예비대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책임지역은 민관군 통합작전에 유리하도록 행정구역 단위로 부여하고, 책임지역에 포함된 향방작전요소들을 책임지역부대가 작전통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3> 포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지면편성은 다중의 방어작전이 가능하도록 3지대 방호개념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1지대는 경계지역으로서, 도시외곽 전방의 주요 고지군을 연해서 경계부대, 경찰대, 관측소 등을 운용하여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고하고, 포병관측장교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적을 원거리에서부터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2지대는 주방어지역으로 도시외곽을 연하여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한다. 상비사단의 주 병력은 적의 주요 접근로 위주로 배치하고 일부는 적 돌파에 대비하여 예비대로 중심에 집결시켜 운용한다. 반면에 향방작전 요소들은 상비사단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공간으로 적 특수작전부대나 소부대가 침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방어진지 상에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한다.

3지대는 도심지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므로 적 특수전부대의 습격이나 테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향방타격대나 경찰기동대 및 전투중대, 향토사단 현역 등을 운용하고, 사단의 예비대를 집결시켜 운용한다.

1, 2지대에서의 전투는 주방어부대에 위임하여 분권화작전을 실시하고, 3지대 내의 작전요소는 사단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애물과 화력의 운용개념은 적이 돌파하려는 경우의 방어작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V. 도시지역작전 발전방안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작전계획 보완, 교리발전, 교육훈련 여건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야지나 산악에서의 작전수행능력 수준으로 보기에 현재 구비한 능력이나 능력 구비를 위한 기반조성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도시지역작전 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계획 보완

현재의 전시작전계획은 적의 공격양상과 해당지역의 지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오랜기간 동안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도시지역작전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번 더 책임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에 대해 적이 직접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도시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의 건물지역이 훌륭한 방어진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의 관성대로 아무런 의문 없이 ‘도시’ 보다는 ‘고지’를 선택하여 진지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양상, 접근로 통제의 용이성 등을 심층 깊게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도시지역을 방어진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악의 상황이지만, 전방지역이 붕괴되어 한강 이남의 대도시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부대가, 어느 도시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수립의 주체를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간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제한되므로 상비사단 별로 후방지역에서의 책임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현재 도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향토사단에서 사전에 도시지역에 대한 세부 제원과 개략적인 방어작전계획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것이 현실화된 경우에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된 상비사단에 인계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차원의 복잡한 전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전투원과 혼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밀한 전장정보분석이 사전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성격과 건물의 구조, 도시내 기동로, 도시기반시설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해야 하며 민간요소와 관련하여 주민의 성향과 민간조직, 지역의 성격 구분, 주요 시설 및 구조물, 민간물자 활용, 지역의 문화 및 습성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되어 있어야 한다.

## 2. 교육훈련

도시지역작전에 대한 교육훈련은 학교기관이나 야전부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숙달할 수 있는 훈련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향토사단에는 대대급 단위로 예비군훈련장에 건물지역전투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분대급 규모 정도가 건물을 이용한 전투기술을 숙달할 수 있는 정도이다. 다행히 육군의 과학화 전투훈련단에 대대급 규모가 도시지역전투를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완공되더라도 연간 이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대는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소규모부대의 전투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최소한 대대급 이상의 규모가 제병협동전투를 숙달할 수 있는 훈련장을 군단 단위로 구비해야 한다.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훈련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우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대급 이하의 소부대가 도시전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근접전투기술훈련기를 개발하여 전투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3. 무기, 장비 및 물자

도시지역작전은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작전과 다르게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장비 및 물자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현실태는 대단히 요원한 실

정이다. 각개전투에 필요한 개인별 장갑, 보호대, 귀마개 등의 장비 및 물자로부터 전투수행기능별로 도시지역작전을 위한 무기, 장비 및 물자 등이 계획상 도시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에게 먼저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전투수행기능별로 구분하여 필수적인 내용들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휘통제 및 정보기능에서는 밀집된 고층건물에 의한 차폐와 통신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UAV·UGV<sup>81)</sup>·MAV 및 무인로봇 등의 무인체계, UHF 및 위성통신 체계를 구비하여 정보획득 및 전파, 전장 가시화, 분권화 통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동기능에서는 차륜형 전투차량, 오토바이, 사다리, 간단 설치 부비트랩, 통로개척용 총류탄 등을 편성하여 도시지역에서의 기동성을 증대시키고 임기 장애물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중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화력기능에서는 공군기 유도를 위한 표적지시기, 엑스칼리버<sup>82)</sup>, 헬파이어 미사일, 저격용 소총 등의 정밀무기가 소요되며, 방호기능에서는 모듈형 방탄조끼, 원격조종 기관총, 슬랫아머<sup>83)</sup> 등을 구비하여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요들은 단기간에 충족될 수는 없지만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인 전력증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작전을 위한 민군 협조

도시지역작전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민군간의 협조는 전·평시 공히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평시에 군의 주 활동영역이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군 협조를 통한 도시지역작전 준비가 상당히 제한된다. 그러나 평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준비해야 한다.

첫째, 도시지역을 담당하는 군부대가 도시지역 환경에 친숙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협조이다. 도시지역에 대한 방어작전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더라도 계획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도시지역에 대한 세밀한 정찰, 도시시설 및 공간을 이용한 부대의 배치 및 점령, 전술기동훈련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81) 무인지상차량(UGV : Unmanned Ground Vehicle)

82) GPS와 관성항법장치(INS)를 갖춘 탄도미사일과 야포 시스템을 결합한 초정밀유도/사거리 연장 포병탄

83) 철망형 장갑(Slat Armor)은 기갑차량을 RPG-7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갑차량을 둘러싸는 철망으로 된 울타리 같은 모양의 장갑을 말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행함으로써 군이 전투해야 할 도시내부의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지역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군에서 이러한 변화내용을 실시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을 협조하는 것이다. 즉 도시와 건물의 구조, 지상 및 지하도로, 도시기반시설의 구조 및 기능, 도시 내부의 각종 시설,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협조회의를 통해 새로운 사항을 확인하고 최신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발달되어 온 공간으로서 군사적인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한다면 도시지역의 모든 인공구조물들은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지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든다면 대형건물의 옥상이나 운동장, 공원 등에 적의 공중강습작전에 대비한 장애물 설치, 적에게 침투공간을 제공하는 지하시설에 대한 차단시설, 건물옥상을 활용하여 저격수 운용·방공무기 배치를 위한 진지 및 중계소 설치 준비, 컨테이너나 방호벽 등 인공구조물의 장애물 전환, 도시지역 내 포병진지 준비, 주요 민간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휘소·의무·정비·보급시설로 전환 사용, 도로대화구 장전공의 사전 준비 등 도시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평시에 조치 가능한 것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전시에 즉각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여 민·군이 함께 최대한 협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VI. 결 론

지금까지 도시지역작전의 필요성,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지역 방어작전 수행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작전의 성공을 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개략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

은 도시지역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투수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도시지역작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본 연구서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군사교리와 전투수행방법의 발전, 그리고 효과적인 도시지역작전 수행 여건을 구비하기 위한 민군과의 협조에 있어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